

중국,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확대

국토 98%가 복사총량 1000kWh 상회 ... 설비용량 1000만kW 확충

중국의 태양에너지 자원량과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인민망(人民網)이 11월22일 보도했다.

중국 사회과학원은 11월21일 발표한 <2012년 기후변화연구보고서>를 통해 중국에서 평방미터당 연간 복사총량이 1000kWh를 넘는 지역이 전체 국토의 98%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대부분 지역이 태양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.

보고서에 따르면, 중국은 전국 연간 복사총량이 평방미터당 평균 1500kWh이며, 복사총량은 Xinjiang(新疆), Xizang(西藏) 등 서부가 동부보다, 내륙이 연해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.

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국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전지판, 풍력터빈 생산국인 중국은 2015년까지 전체 발전용량에서 비화석에너지의 비율을 30%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.

이에 따라 중국은 Xinjiang, Xizang, Qinghai(青海), Gansu(甘肅), Inner Mongolia(內蒙古), Ningxia(寧夏), Shanxi(陝西), Yunnan(雲南), Hainan(海南) 등을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집열면적을 4억평방미터로 늘리고 태양 에너지 발전설비를 1000만kW로 확충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11/22>